

B-5 치석제거술과 치근면활택술후 다근치와 단근치의 치은연하 세균 재균락에 대한 비교연구

백호진* ·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I. 연구목적

치석제거술과 치근면 활택술후 이개부와 단근치에서 치은연하 미생물의 재균락 형태를 위상차현미경과 BANA Test를 이용하여 비교연구 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원광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중 성인형 치주염 환자 7명(남성 : 5, 여성 : 2)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5mm이상의 치주낭을 지니고 있었고,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2-58세 이었고 평균 40.3세 이었다. 모든 대상자들은 전신질환이 없었고, 최근 6개월이내 치주치료를 받은 경험과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7명의 환자를 치주낭 깊이가 5mm이상인 이개부가 이환된 다근치한 부위와 단근치를 split mouth로 선정하였다. 실험 시작전 임상검사와 치은연하 치태의 위상차 현미경 검사(+1,000)(Laborlux S, Germany)를 실시한후 치은연상 치석제거술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대상 치아에 대해서는 국소마취하에 치근면 활택술을 실시하였다. 환자들에게 잇솔질법 과 구강위생을 교육시키지 않았다. 임상검사와 위상차 현미경 검사, BANA test는 치석제거술과 치근면 활택술 전과 후 1주, 2주, 4주에 검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주낭 깊이는 군간 유의성은 없었지만, 두군모두 치태지수는 2주, 치은지수는 2주와 4주, 치주낭 깊이는 다근치에서 2, 4주, 단근치에서 4주째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P < 0.05$).
2. 미생물학적 변수에서 구균은 단근치에서 4주째에 유의성있는 비율증가를 보였고($P < 0.05$), 운동성 간균은 단근치와 다근치모두 실험 4주째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나선균과 비운동성간균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BANA test는 단근치의 경우 실험 1, 2주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고($P < 0.05$), 다근치에서는 실험기간동안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2주와 4주에서 군간 유의성이 있었다($P < 0.05$).